

2분기 전국 아파트값, 5년만에 최대폭 ↓

전세가격 하락폭 금융위기 이후 최대...광주 소폭 상승
한은 "하반기 집값 안정...약세 보이다 내년엔 보합"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이 5년여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일부 지방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오름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서울은 4년 가까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상반기 전세수급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파트 전세는 서울과 지방 모두 내림세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전 분기 말 대비 0.3% 하락했다. 이는 2013년 1분기(-0.7%) 이래 가장 큰 폭이다.

분기별 가격 하락은 2016년 1분기(-0.1%) 이래 2년여 만이다. 울산과 경남 등 일부 지방 아파트 가격 급락세가 전국 평균까지 끌어내렸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2분기에 0.9%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4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폭이다. 경남(-2.3%)은 2016년 초부터, 울산(-2.5%)은 2017년 초부터 계속 하락세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영향이다. 충북, 충남, 경북도 1% 넘게 내렸다. 다만 대구와 세종, 광주는 소폭 올랐다. 서울도 0.8% 상승했다. 2014년 2분기

(-0.1%) 이래 4년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2분기 이래로는 1% 이상 상승세를 이어왔고 올해 1분기에는 3.6% 뛰었다. 다만 연초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달아오르던 열기가 식고 자차구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 가격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상승 등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안정세가 지속된다고 예상했다. 입주물량이 장기 평균을 상회한다는 점이 전망 배경이다. 한은은 주택 전세가격은 하반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역시 입주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수급지수는 113으로 2004년(100) 이래 가장 낮았다. 수급지수

가 낮을수록 주택 공급이 우위라는 의미다. 이를 반영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분기에 1.1% 하락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1.5%) 이래 가장 큰 폭이다. 서울이 1.0% 내리며 6년 만에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2012년 2분기가 -1.3%였다. 지방은 14년 만에 아파트 전세가격 약세가 가장 심했다. 전 분기 말 대비 하락률이 1.1%로 2004년 3분기와 같았다. 세종(-3.2%), 울산(-3.1%)은 3% 넘게 떨어졌고 경남은 -1.9%, 충남은 -1.8%였다. 입주물량이 몰리는 경기도 1.4% 하락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확대되며 가격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위축되고 재건축이 증가 많은 점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은-JB금융지주 주식교환 경영 안정성 강화 기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43.03%의 주식을 J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주식교환방식은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JB금융지주의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광주은행의 보통주식 1주당 JB금융지주 보통주식 1.8872주를 교환하며, 9월말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10월중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주식교환은 대주주 지분이 확대(56.97% → 100%) 된 것으로서 광주은행은 JB금융그룹내 주력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어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적기 자본확충을 통한 경영안정화와 비용절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JB금융지주는 효율적인 그룹 시너지 전략 추진,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등이 개선되어 광주은행과 JB금융지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광주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은행이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회사는 없다.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은 "JB금융그룹내에서 주력 회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기아차가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회공헌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 '레드클로버' 3기 참가자 모집한다.

기아차 '레드클로버' 3기 참가자 모집

다음달 6일까지 40명 모집...이동수단 연계 활동 주제

기아차는 다음달 6일까지 사회공헌 홈페이지(http://csr.kia.com)를 통해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 '레드클로버' 3기 참가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실시된 '레드클로버'는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공헌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대중에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이다. 기존의 대외활동이 정형화되고 일회성

에 그쳤던 것에 비해, 레드클로버는 대학생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 기획, 실행까지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 활동은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활동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유모차,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 연계 활동까지 분야를 확대했고 대학생 8명이 팀을 이

루어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다음달 오리엔테이션, 발대캠프를 진행해 레드클로버 3기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9월부터 사회공헌활동 전문가의 도움 아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이동수단 연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 마무리 단계에서 '레드클로버' 참가 대학생들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확산을 주제로 한 소셜 퍼포먼스를 펼침으로써 일반 대중과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zkj0000@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주째 상승

7월 둘째주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609.9원...1.7원 ↑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연중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l당 평균 1.7원 오른 1천609.9원을 기록했다. 전주(0.4원)에 이어 2주째 상승곡선을 그린 것으로, 지난달 둘째주에 기록했던 올해 최고치(1천610.1원)에 근접한 수치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둘째 주까지 8주 연속 상승한 뒤 이후 2주째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찾는 듯했으나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또다시 들쭉이는 양상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1.7원 오른 평균 1천410.8원에 거래되면서 역시 연중 최고치(1천411.0원)에 육박했다. 실내 등유는 1.2원 오른 941.1원이었다. 상표별로는 가장 가격이 낮은 일일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1천 587.0원으로, 전주보다 1.4원 올랐

다. 가장 비싼 SK에너지도 2.3원이나 상승한 1천626.8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2.7원 오른 1천 695.6원이었다. 경남이 1.1원 오른 1천 586.7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주요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보다 l당 무려 43.2원 오른 1천518.9원을 기록하면서 한 주 만에 다시 1천500원대로 올라섰다. 경유와 등유도 각각 50.2원과 49.2원 급등한 1천334.6원과 832.5원에 공급됐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원유 수출 재개, 미국의 이란 제재 면제 검토 등 하락 요인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 상승 요인으로 혼조세를 보였다"면서 "국내 제품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7월 둘째주 가격이 배럴당 평균 74.5달러로 전주보다 0.4달러 내렸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천280만대

2.3명당 1대 보유...수입차 8.9%·친환경차 1.7%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280여만대로, 인구 2.3명당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작년 말에 비해 1.6% 증가한 2천288만2천35대다. 이는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연 3%대 증가율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등록대수 연간 증가율은 2015년 4.3%에서 2016년 3.9%, 작년 3.3%에 이어 올해에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산 차는 2천 83 만 8 천 5 6 5 대(91.1%), 수입차는 204만3천470대(8.9%)다. 수입차 점유율은 8.9%로 작년 6월 8.0%에 비해 0.9%포인트 높아졌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전

기수소차는 39만3천64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커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등록대수는 1년 만에 2.3배 증가한 3만6천835대를 기록했다. 수소차는 358대로 1년 전에 비해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천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중 최근 1년간 전기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청북도였다. 올 6월 충북의 전기차는 621대로 1년 전(129대)에 비해 381.4% 증가했다. 전기차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로, 1만1천287대가 등록돼 있다.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자동차 소유자는 1만38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다. /강상구 기자 rkdtkdrn0913@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